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55년 전 옛일을 기억해 본다. 반세기가 훨씬 지난 그때의 일. 1964년 5월 27일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하야'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전남대학교 학생 데모의 추억담이다. 어떻게 해야 그때의 기억을 제대로 살려 낼 수 있을까 걱정하던 차에 책꽂이 깊숙이 꽂혀 있는 몇 권의 책을 다행히 찾아냈다. 그 시절은 이미 군사독재 권력이 언론이 재갈 물려 있던 때여서 당시의 언론 보도나 책으로 기록된 내용은 희귀했다. 하지만 우선 27일 다음 날인 5월 28일자 '전남매일신문'(광주일보 전신)의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20년 뒤인 84년 7월에 간행된 '해방 후 한국학생운동사'(형성사, 이재오 저)라는 귀중한 자료도 찾아냈다.

64년 학기 초부터 전국의 대학가에서는 한일회담이 굴욕외교라고 규정하고 한일회담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5·27 대통령 하야 데모

연일 학생 시위가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독재정권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시위 세력의 약화를 꾀하기 위한 술책과 위계만 남발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때였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전남대생들은 5월 27일, '애국충정 있거든 하야로 보답하라' '권고 권고 하야 권고' '광주발언 취소하고 내 책임 내가 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4·19 이후 군사정부의 퇴진과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가 학생 시위에 등장했던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위의 책 p229)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은 전남대학교에서 군사정부의 퇴진과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 데모가 4·19 이후 최초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당시 광주의 양대 일간지의 하나이던 '전남매일신문'은 석간 5월 28일자 사설에서 그 전남 대통령 하야데모를 상세히 알리면서 학생 데모를 권력 당국은 혁신계 세력의 책동, 불손 세력의 방조로 일어났다고 했지만, 그럴 리가 없으면서 그때 외쳐진 구호를 열거해 놓았다. "구속된 애국 학생 상당 주어 석방하라" "최루탄 곤봉으로 우리 자유 못 막는다" "정절 높은 귀부인에 윤간이란 웬 말이나" "배고파 못 살겠다 부정 재벌 잡아먹자"라는

강한 구호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하야(下野)를 권고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들으면 데모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내용도 담았다.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정부를 붕괴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 기간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군부독재 기구로 국민을 압제해 오다 헌법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라는 국민의 힘에 밀려 1963년 대통령 선거로 그해 11월 정식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64년 5월이면 취임한 지 겨우 6개월 정도인데 참고 참다가 견디지 못한 전남대생들은 온갖 독재와 악행을 저지르는 군사정권의 퇴진과 대통령 하야를 최초로 부르짖은 것이다. 이후 그해 여름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가에는 대통령 하야 데모가 붓물 터지듯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박 정권은 결국 위수령 발동, 계엄령 선포 등의 온갖 압박 수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기에 이른다.

또 하나의 자료가 있다. 32년 뒤인 1996년 3월에 '오늘의 한국정치와 6·3세대'라는, 경향신문 신동호 기자의 집필로 '도서출판 예문'에서 간행된 책이다. "그해 4월 초 장준하·강문봉 등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 ... 학내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터진 것이

'박정권 하야'를 요구한 5·27 데모였다. ... 이 데모는 박석무가 주동한 용봉골 6·3운동의 최대 사건이었다. 박석무는 이 시위 주동을 계기로 전남대 학생운동의 거물로 떠오른다. 5·27데모는 박석무 혼자만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언문과 플래카드를 그가 직접 집어서 만들고 중증 동원과 선언문 낭독도 그가 했으며 데모대의 투석전을 지휘한 것도 그였다. 그는 '신망 많은 박정권 하야를 권고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숨기고 아침 일찍 '황금버스'(노란색 통학버스)가 출발하는 계림동 파출소 정류장에 나갔다..."(p176)라며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중간경향에 연재하다 뒤에 책으로 간행하였다.

역시 기록은 무섭다. 잊혀진 55년 전의 옛일을 회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호 기자가 기록한 대로 그 5·27데모는 학생들이 경찰의 최루탄을 뚫고 투석전으로 맞서며 도청 앞까지 진출한 광주학생운동 첫 번째의 쾌거였다. 그 데모로 6·3학생운동은 전남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또 그 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남대 학생운동의 강고한 투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이제 반세기 전 투쟁의 그런 역사도 제대로 간추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법조칼럼



이정훈
변호사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먼저 광주군공항 이전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광주의 소음 피해가 싫어서 옮기려 한다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논리를 꺼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는 광주의 민간공항도 이전되므로 군공항도 이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군공항 이전은 항공기 안전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영국 히드로국제공항, 파리 샤를드골공항 모두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공항이지만 정작 수도인 서울, 런던, 파리에 위치해 있지 않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는 그 큰

광주 군공항 이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처에 대규모 주거지가 있지 않아야 하고, 항공기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이 해당 국가 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근교에 공항이 위치해 있다. 국내 공항인 김포공항과 김해공항도 서울과 부산이 아닌 그 근처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지난 후 제대로 된 도시 계획 등 도시화 과정 없이 6·25 전쟁 당시부터 군공항으로 이용하던 곳이 그대로 지속되다 보니, 그 후 산업화 과정을 통해 도시 한복판에 공항이 위치한 곳이 많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광주 뿐만 아니라 대구와 수원도 그 대상으로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광주가 단순히 기피 시설인 군공항 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민간공항 이전을 먼저 한 것이며 군공항 이전이 안 되었음에도 민간공항 이전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즉 광주가 보여주는 모습은 지역 이기주의와는 그 결이 다르다.

다음으로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각 주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먼저 민·관·군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광주시가 주도하는 형태로는 전남도나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집행부나 의회만 유발하기 쉽다.

이미 광주에는 광주군공항 이전추진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해당 민간 조직을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 또한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무안과 신안, 영암의 반대 단체를 초청하거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광주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군공항 소음에 대한 오해 해결 등의 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와 관련 추진위원회를 수월이나 대구의 군공항 이전과정 및 추진방향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군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공군부대 이전 후 소음 공장병들의 휴가·외박으로 해당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무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군부대의 관련 시설 및 설비로 인해 무안 민간공항의 활주로 및 계류장 등 설비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고, 민간공항의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처 주민들에 대한 대민 지원 활동(태풍으로 인한 복구 작업 지원, 농번

기 일손 도움 등)을 통해 군부대에 대한 막연한 기피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군부대 이전의 주체는 엄밀히는 군대이므로, 군대의 관점에서 어떤 지역이 공중 작전 수행에 적합하고 지역 방위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광주군공항의 공군 제1 전투비행단 방어 범주에는 광주 뿐만 아니라 인근 전남 지역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광주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군공항 예비 후보지의 개발 공약, SOC현안을 잘 파악해 광주군공항 이전 후 조성할 솔마루 시티를 통해 연계 될 이득 일부를 해당 군의 개발 및 SOC에 투입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칭의 재고도 요청된다. 명칭 자체에서 광주에 있는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보다는 공군 제1 전투비행단 이전 사업이나 광주·전남 군공항 이전 사업(사부대 무안 민간공항 활성화, 연 이 용객 500만 돌파 프로젝트)를 붙여서 자칫 광주와 전남 해당 지역의 지역 갈등 구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기고

자사고, 합당한 방법에 따라 교육 변화 이끌어야



이세천
전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상상고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경기 등의 자립형 사립학교 재지정 문제로 갈등이 부각되며, 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변화된 세계에서 먹고 살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도, 대학 입시나 교직원들의 이해와 맞물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학생에게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한편 아무리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지라도 소수에게만 특혜가 주어지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여 오히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어고나 과학고, 영재고 등은 학생들에게 입시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창의력을 향

려운 부작용이 생겨났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사고로 간 학생들을 일반 학교로 돌아오게 해서 함께 정상적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오히려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사고가 설립될 때에는 교육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혁신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교사들이 참여하여 창의성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킨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교육 재정을 지원하여 원래의 취지를 살린 교육 변화를 돕겠다고 한다.

기왕에 설립된 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회의 엄정한 평가와 견인이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대안 학교들의 노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내·외부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의 성과가 뚜렷한 학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교육의 변화를 이끌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 학교는 일 반고로 전환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이해를 같이 하는 학부모들의 힘을 빌려 정당한 평가 결과를 거부하는 일부 자사고의 모습은 스스로 변화하는 길을 막고 있는 셈이다.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 사회는 학교에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시대 요구하는 품성과 능력을 기르도록 바랄 수 있다. 하지만 당위만을 가지고 일정한 방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합의의 이룬 창의력과 올바른 인간관계를 기르는 교육에 합당한 방법을 찾아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기(禮記)의 학기(學記) 편에 보면 "배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고, 가르쳐 보고 난 후에야 교육의 어려움을 깨달을 수 있다(學然後知不足 教然後知困)"고 했다. 배우는 당사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려는 자세와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배움은 발전하지 못한다. 교육 당사자들도 학생들과 깊이 교감하여 함께 방향을 찾아가지 못하면 계속되는 아픔만 느낄 수밖에 없다.

社說

광주·전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시급하다

올 들어 광주·전남 지역 국가산업단지 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계 기업 투자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들었고 군중 동원과 선언문 낭독도 그가 했으며 데모대의 투석전을 지휘한 것도 그였다. 그는 '신망 많은 박정권 하야를 권고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숨기고 아침 일찍 '황금버스'(노란색 통학버스)가 출발하는 계림동 파출소 정류장에 나갔다..."(p176)라며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중간경향에 연재하다 뒤에 책으로 간행하였다.

역시 기록은 무섭다. 잊혀진 55년 전의 옛일을 회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호 기자가 기록한 대로 그 5·27데모는 학생들이 경찰의 최루탄을 뚫고 투석전으로 맞서며 도청 앞까지 진출한 광주학생운동 첫 번째의 쾌거였다. 그 데모로 6·3학생운동은 전남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또 그 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남대 학생운동의 강고한 투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이제 반세기 전 투쟁의 그런 역사도 제대로 간추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광주 지역 국가산업단에 입주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기업도 지난 7월 기준 74개로, 신규 입주 업체(65개)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민주당 어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경제자유 구역별 투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1428만 5000달러에 그쳐 전년에 비해 61.4%나 줄었다. 이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이다.

산업단지는 그동안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해 왔다. 그런 점에서 입주 기업들의 가동률 저하는 생산과 수출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한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의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5·18추모탑 표절 논란 해소 다행스럽다

광주 5·18민중항쟁 추모탑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이가 최근 고소를 취하였다. 추모탑 작가인 이상욱(61) 전 광주미술협회장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동일(80) 부산대 미술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고소 취하장을 북부서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5·18 추모탑은 국립 5·18민주묘지 중앙에 있는 40m 높이의 조형물이다. 1995년 광주시는 '5·18 추모탑 조형물' 공모를 통해 조각가 이상욱 씨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탑을 건립했으며 5·18 기념식은 매년 이 추모탑 앞에서 열려 왔다.

한데 20여 년간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해 온 이 추모탑이 갑자기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 교수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나 작가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부터다. '5·18 추모탑 조형물' 공모에 내기 위해 이 교수가 만든 탑의 투시도(설계도) 패널을 나 작가가 모방했다는 게 고소장의 골자다. 그

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교수의 설계도는 광주시 공모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 작가는 그동안 "이 교수가 먼저 작품을 발표했다거나 도록이 있다면 보고 배길 수 있는데 그런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표절 의혹을 일축하면서 "추모탑은 또한 광주미술인공동체 소속 조각가 10여 명이 공동으로 제작했고, 당시 모임에서 발설 토론을 거쳐 나온 산물"이라고 강조해 왔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에서도 나 작가의 표절 혐의는 전혀 없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 역시 결국 이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찌 됐든 표절 논란이 일단락된 것은 이 교수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나 작가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부터다. '5·18 추모탑 조형물' 공모에 내기 위해 이 교수가 만든 탑의 투시도(설계도) 패널을 나 작가가 모방했다는 게 고소장의 골자다. 그

無等鼓

"크리토여, 우리가 이스콜라피우스에게 수탈 한 마리 값은 치르지 않은 것이 있네. 잊지 않고 갚아 주기 바라네." 크리토가 대답했다. "닭 값은 꼭 치르겠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이 물음에는 대답이 없었고, 한참 있다가 그분의 몸이 한 차례 꿈틀 움직였다네. 집형인이 이불을 벗겨 보니 선생님의 눈길은 굳어져 있었고, 이것을 본 크리토가 그분의 입과 눈을 닫아드렸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이 쓴 '대화편'(The Dialogues) 가운데 '파이돈'(Phaidon)에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당시 소크라테스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성을 끌어들이으로써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청년들을 교육하는 아테네의 양심이라고 주장하고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비난은 중상모략'이라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시민 배심원들은 281표 대 220표로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유죄판결은 당시

아테네 정치의 중심지였던 아고라(Agora-광장)에서 이뤄졌다. 재판 당일 아테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추첨에서 뽑힌 배심원들은 아고라에 설치된 시민 법정에서 직접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듣고 난 뒤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광장 정치'가 수천 년 세월을 건너뛰어 요즘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두 갈래 진영으로 나뉘어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인 국회를 '패싱'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수십만 명

의 군중이 들어찬 서초동과 광화문은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아테네의 아고라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하는 질서가 있었다. 이에 비해 서울의 아고라에는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맹목과 증오만 판판다. 분열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서울 집회의 열기가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 훗날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0005)
220-0632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220-0652	체육부	220-0633	(FAX 222-0195)
220-0642			
다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